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9호 [우계 제25182호] 주제 105 (2016)년 2월 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할데 대한 명령 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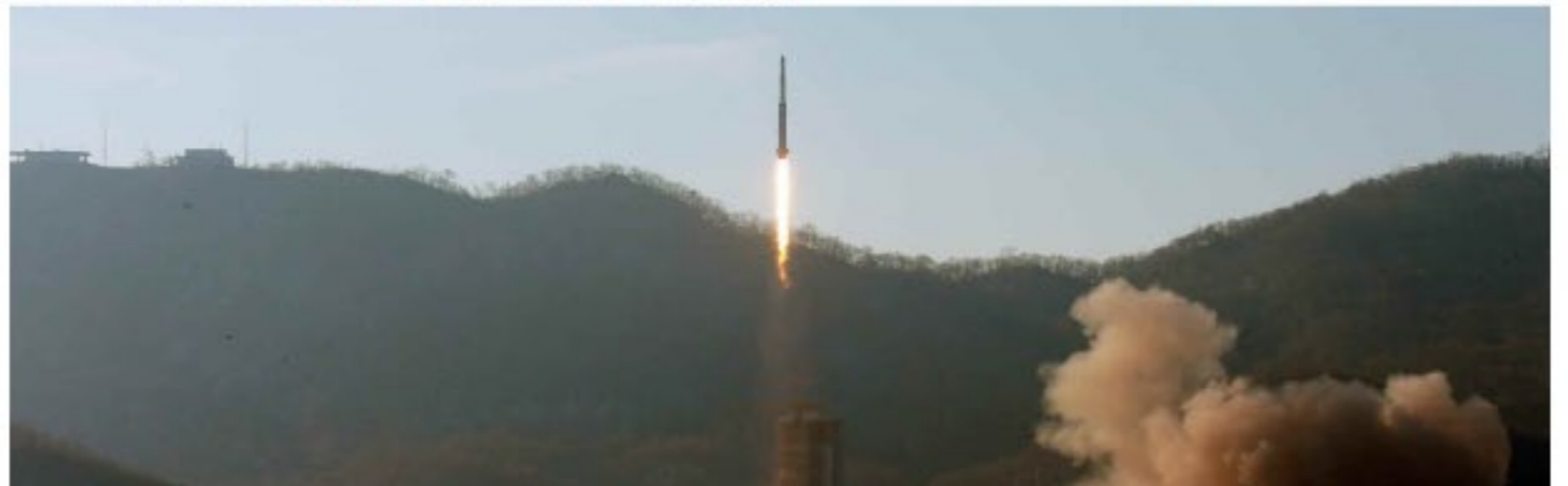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 105(2016)년 2월 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김정은은 위정각사들
공인합니다
2016년 2월 6일
위시어 발사준비
2016.2.6*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준비 끝낸 정형과
책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국
2016년 2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하였다.

운반로케트 <광명성>호는 주제105(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4>호는 97.4°의 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 494.6km, 원지점고도 500km인 극궤도를 돌고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이다.

<광명성-4>호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있다.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대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새겨진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운은 우리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존엄높은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주체의 위성들을 더 많이 만리대공으로 쏘아올릴것이다.

주제105(2016)년 2월 7일

평 양

정론

하늘 땅을 뒤 흔든다

또다시 천하가 전동하고있다.
첫 수소탄의 장대한 폭음으로 세계를 뒤흔든 강대한 조선의 힘이 팽활한 우주만리에도 뻗어지며 거대한 의상을 띠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
우주에 새겨지는 주제위성의 비행은 이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무지개로 눈부시게 이른다. 이 나라의 아들 딸로 태어난 공지로 가슴은 한껏 부풀고 이 조선이 통째로 우주에 온몸을 힘써안는다.
2월의 하늘을 새겨진 우리 위성의 비행은 그대로 광명성설을 닮으며 펼쳐놓는 영광의 눈부신 황홀경이요 위대한 장군님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다.
주제위성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 성공에 이어 또다시 지구관측위성 발사에 성공!
이 하늘이 온 우연도 아니고 그 누가 가리킨 열매도 아니다.
조선의 무진강강한 국력의 다제단 폭발이요 우리의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비활하게 남겨진 제국주의제국들에게 안기는 권속력, 전승의 장대한 속포성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의 사위주의위업은 끝을 볼줄이며 조선로동당의 영도따라 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멸절인 광명성, 정국혁명투력의 강화 발전사에 특기할 력사의 2월 8일과 보다 최강한 패일을 약속해주는 우리의 설명전...
비아흐로 다카를 환희와 경축의 열파에 불을 달며 상상조차 못했던 변이 더진것이다.
전유처럼 위대한 위성발사성공의 소식과 함께 이 땅은 샅샅이 격동의 도기로서 변하였다. 북녘의 하늘이네 첫 고사로부터 분개연선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증산의 동음들은 공강장과 불꽃은 험룡비발, 천길땅쪽의 지하강에서 이르기까지 무한한 승리의 함성이 전갈한다.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가나 《광명성-4》호의 쫓아다니는 소식은 울린다. 우리 조국이 자랑할 만한 목소리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사람을 누구나 열광의 환호를 퍼쳐며 거리와 마을들이 들끓거린다. 나이든 학생들은 그대로 과학기술 전당에서 본 인공지구위성은반로케트의 모습을 떠올리며 속제장에 속색있게 그려간다. 위성이야말로 집집의 창가마다 밤길도둑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조국이 더 큰 힘을 안았다. 첫 수소탄의 장대한 폭음에 가슴떨릴듯한 공지에 넘쳐 폭풍처럼 일어섰던 우리 진군대오가 백배의 힘을 안고 더욱 산악같이 일어섰다. 간밤에도 두문, 세문 일출 제진혁 혁신자물,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제국이 전제없는 생산적양양의 기세이고 힘있게 펼쳐나갈 때 저기 백두산기슭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무한대의 힘을 다시한번 만장약하며 백두산영웅청년 3호발전소건설의 총돌격전에 진입하였다. 강대한 조국의 위용을 안고 천하방안이 무적의 성새로 더욱 솟구치고 온 나라가 또 한번 울

렷 일어섬 승리의 5월에도 달려 가고있다.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자가 레도에 정확히 진입!
얼마나 가슴벅찬 사변인가. 우리 조국의 무한대한 국력과 담대한 설계도를 알수 있고 우리가 남아 온 모든 아득한 놀이를 힘있게 가르쳐 준다.
장대한 승리의 피서이다. 조선은 결코 땅우에만 아니라 저 팽활한 우주에서도 마음먹은대로 무엇이든 다 해낼수 있는 나라임을 소리높이 선언하였다. 조선은 주체의 핵강국과 함께 당당한 우주강국임을 세계에 알린 통쾌한 피서이고 만리대공으로 뻗치는 그 힘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걸 보며 력사의 대장장이가 된다.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이다. 우주를 평화롭게 리용하는것은 오늘의 세계에서 그 누구나 지향하며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무엇때문인가. 어찌하여 우리의 위성발사는 그러도 큰 충격으로 온 강산을 진감하고 전제제를 들끓게 하는것인가.
인류가 무한대 우주공간에 인공 지구위성을 파출할 때로부터 수십 년, 자기의 켜도를 따라 들고있는 위성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성을 자기의 운반체제로, 자기의 발사대로 켜도로 진입시키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주정복은 누구나 쉽게 이룰수 없는 거창하고도 어려운 위업이다.
바로 조선이. 우리 조국이 우주강국의 전열에 나섰다.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내면제의 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킨 사변앞에서 누구나 실감이 들는다. 자기 정신으로, 자기 힘으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를 하늘에 새긴 우리 조국.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1998년 8월의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 2009년 4월의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2012년 12월의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 2016년 2월의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
마치도 그것은 천하제일강국으로 뛰어오르는 조선의 다제단비약의 그 띠와도 같다.
나라가 어떠한 시련을 겪던 1998년,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을 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선율이 온 우주를 짙 채우며 울려지던 그때 북받치는 흥분에 넘쳐 온 조국땅이 기쁨에 실려이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인류의 우주개발사를 펼쳐보아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던 첫 위성발사에서 단연성공한 조선의 승리를 두고 세계가 격찬하던 목소리들이 이 시각도 귀전을 울리는것만 같다.
그래로부터 불과 20년도 안되는 기간이다. 정소한 우주개발국으로부터 우주강국으로 우리는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였다. 무차예의 시험위성 발사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으로의 도약, 경사궤도위성으로의 국제도위성으로의 급속한 발전, 우주정복의

천하제일강국 조선의 시대가 열렸다. 다지고다져온 나라의 힘이 총 폭발하고 다제단으로 변혁이 펼쳐지는 이 세월, 자기의 자주적인 의지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시대, 인민의 모든 갈다 이루어지는 민족의 시대, 일대 면면의 시대...
이 땅, 이 세월에 사는 인민의 영광 불이 없고 강대한 조국의 불꽃 미를 활짝 핀 민족의 환희 하늘땅에 차넘치게는 위성이요,
그 눈부신 비행으로 조선의 모습을 우주에 드러내고 또 새기라. 민비대를 향한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소리높이 떨쳐라.
그 이름은 광명성, 하늘로 날아오른 그날도 뜻깊은 2월이다.
진정 우리의 2월의 푸른 하늘은 그리운 하늘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이 행성을 눈부시도록 이채롭게 장식하며 새겨지는 비행은 우리 장군님 향신길 거대한 업적이 우주 만물에 담은 눈부신 영성의 빛바람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는 온 민족이 영원토록 깊이 숭모해야 할 주체의 우주강국건설의 개척자이다.
저 멀리 천하제일강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선견지명의 천재적예지와 완강한 의지력으로 모진 고난을 한몸으로 막으며 우주에로의 넓은 길을 열어준 민족의 위대한 영웅, 우주에 비끼는 침략의 검은구름을 쳐갈기며 우리의 포부와 리상, 우리 조국에게 조선의 힘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라. 우리 나라처럼 제국주의의 거중되는 세계와 압박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인류사의 가장 정의로운 인민, 가장 정의로운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천부들의 머릿수에 천주를 내리며 열강들의 오만성을 폭사발내는 조선의 정의의 피서, 동방의 강대국의 우월한 선인이 울었다.
우주에 뻗은 조선의 힘이 이제 어떤 눈부신 현실을 놓고 이 땅우에 어떤 위대한 미래를 안아줄것인가를 원수들은 잘 알고있다. 우리 위성의 비행은 물론 비라보며 갈망질망하는 원수들의 우애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최후말막이요 단말막적인 비명인 것이다.
그렇다.
조선이 갖는 자라길따라 정의의 진로가 그려지고 세계사후의 흐름이 이어지는 천하제일강국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모든 면에서 보아 조선은 자부담당한 천하제일강국이다.
정치사상강국에 군사강국, 청년강국, 핵강국, 우주강국...
조선이 지닌 그 이음도 세계에 없는것이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며 하자는 목표도 세계에 없는 창조적 기준이다. 그렇기 하나, 돌이켜보려는 기적들은 그 열조들이 세계를 놀려놓은것인가.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땅속에는 우리 지하선정차!
전제없는 자력의 기적들도 우리 시대의 자랑이고 건설의 대면영기. 황홀계의 파도도 더없는 조선의 긍지이다. 절실히든 못했지 않고 해놓는 모든 일이 지구를 진감시키는 이런 나라가 진짜 강국이 아니고 무엇이랄 것인가.

한 모습을 보고 또 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정한 켜도에 정확히 진입하는 그 광경이 너무도 통쾌하고 대적이 기쁘시며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그이의 영상을 우리르며 이 나라 남다른 소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 만세, 만만세를 목청껏 더치고 또 더치였다.
보통대의 위성발사와 그 의미가 다르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의 도수가 한계를 넘어서는 준엄한 정제속에서, 저 군사문제선리에서 침략의 독이발을 무릅쓰게 가는 원수들과의 포성없는 정제속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아니시던 과연 누가 이런 최악의 역경속에서 이렇듯 담대한 결심을 내릴수 있었는가.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대표를, 침략자들이 핵공용기를 휘두르면 강력한 전쟁력체력을, 이렇듯 담대한 배짱과 공격기상으로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인민의 가슴 뜨겁게 달아오른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의 환희가 새겨졌고도 전에 위성발사성공으로 선군조선의 강인담대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시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무한한 사색과 창조적 세계는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수 없다.
불과 30여일만이다.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의 그날로부터 위성발사의 오늘까지 우리 원수님께서는 진행하신 현지지도는 그 열이었고 몸소 지도하신 회의들은 또 열이었던가.
당 제 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미련히 주시며 강현군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위성발사의 대장기를 단행하시었으니 보지 못하는 애국현신의 길을 활기치게 하시며 그이께서 지세 우선 발달, 해쳐나오신 명걸들을 저 하늘의 맑은 달아, 너는 알고있지 않나.
지구관측위성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사상과 뜻을 만드는 건에 질사의 각오로 뛰어든다면 어디서나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안아오게 될 것이다.
심년동안에 한 일과 맞서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일만에 끝내고 승리의 속보를 쓰아올린 우리 백두의 영웅정충들의 투쟁은 또 얼마나 심오한 투쟁의 진리를 이 땅에 새겼던가.
원수님 믿을어린 우리는 지구도 흔들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면 단사가 잘된다는 투쟁의 그 법칙을 원수님 시대의 군대와 인민은 이런 세상에 없는 글자로 력사의 편지에 아로새겼다.
그것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은 온 우주를 끌어당기시는 태양이시라는 말, 그렇듯 위대한분을 명도자로 모신 조선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이다.
세계에 그 존엄 높이 펼쳐진 천하 제일강국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원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질세의 위인을 모신 강국의 인민이 이제 못해낼 일이 무엇이요 국부 못할 시련이 또 어디 있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또다시 승리가 닥아오리라.
이것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대한 폭음으로 2016년의 시작을 열고 우주로 솟구치는 위성의 속도로 이해의 진군길을 다그치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열망이다.
최후의 승리를 마중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진실이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오노보다 더 험난한 진로길 편만리가 막아나설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오노보다 더 험난한 진로길 편만리가 막아나설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오노보다 더 험난한 진로길 편만리가 막아나설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오노보다 더 험난한 진로길 편만리가 막아나설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다.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수도의 한 청년대학생이 지은 즉흥시의 대목이 이러다.
인세 어느때나 성공이다
장쾌하다
멋있다
멋있는 모습이어!
...
이것이아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성하신 자라길따라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오는 흥하는 오늘의 시대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시어이다.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간직하게 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이다.
불러는 4년세월의 배배, 배배, 매일의 사변과 기적들이 그이의 손길따라 그려서 결실하는데로만 폭풍 결실이 맺어지곤 하지 않았던가.
멀리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 라신 땅의 천하위풍도 남들은 우리가 해내면 손바닥에 잠을 지지겠다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하여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는 평양시민들
본사기자 비영일, 장성복 찍음

김정은
2016. 2. 8
2012년 12월 12일의 바로 그 시각처럼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권령명령을 내리시고 지식을 흔들며 우주로 치달는 우리의 위성의 장쾌

김정일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평양청도국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김정일동지께서— 본사기자 리희락 찍음 —평안구역 비메동 김명조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